

지대본 모두발언

7.25.[일] 16:00 재난안전상황실

기안: 이어진 (평가담당관/3314)

검토: 서인석 (평가담당관/3311)

수정: -

□ 지난 한 주간 시사점

○ 섬세한 방역강화 대책 마련해야

- 시민안전본부에서 3차 대유행 관련 대책을 정리한 바 있는데, 현재 그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확산세가 쉬이 진정되고 있지 않음.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 영향력이 강력한 것
- 감염취약 고리와 사각지대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섬세한 대책을 모색해야
- 지난 한 주간 실시한 고위험군 선제검사로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여럿 찾아냈음
 - ▶ 택시기사 2명, 학원강사 1명, 요양병원 종사자 2명 등

〈고위험군 선제검사 현황〉

계	행 정 명 령			권 고	
	요양병원 (1월~)	요양시설 (1월~)	노래연습장 (7월~)	학 원 (5월~)	교통 분야 (7월~)
392,508명	23,506명	354,338명	1,875명	8,063명	4,726명(택시)

- 가능하다면 선제검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

□ 거리두기 단계 연장 관련

○ 거리두기 단계 연장과 일부 변경내용 현장에 잘 전파

- 내일부터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
- 일부 변경되는 조치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알리도록 조치
 - ▶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(강화), 결혼식·장례식 친족 여부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 허용(완화) 등

□ 군·구별 코로나19 및 방역상황 점검

○ 함께 공유해야할 상황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

- 중구(+ 부평구) : 직장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, 중구 냉동회사와 부평구 의료공장 진행상황은 어떠한지
- 연수구 : 중고차 시장 관련, 검사 유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
- 부평구 : 서울시가 부평역 인근 숙박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일방적 추진하는 황당한 일 발생. 이제라도 ‘주민 동의와 해당 지자체 협조 없이는 운영 불가하다’ 는 입장을 밝혀 다행. 인천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도 해당시설을 쓸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. 적극 대응해준 청장님 고생 많으셨음
- 서구(+ 동구) : 서구 주점 집단감염이 7월 2일 최초 확진환자 발생 이후 3주 넘게 지속. 현재까지 총 114명(24일 18시 이후 확진 포함). 우리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 중인 것인지. 방역조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